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기 잃은 '대학가'

2학기 비대면 강의...새내기, MT·환영회 대신 '집콕' 학내모임금지·시설폐쇄·동아리 등 자치활동 위축 도서관폐쇄·축소운영...학습공간 못구해 '전전공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대학가가 생기를 잃었다. 신입생 환영회 등 각종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고 학내 동아리 활동도 크게 위축됐다. 고강도 방역조치 시행으로 학습 공간마저 마땅치 않아 대학생들의 고충이 크다.

캠퍼스를 통해 수 십편의 드라마를 시청, 이른바 '정주행'하고 있다.

박씨는 "비대면 강의로 여유 시간이 많아졌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했다. 외출도 자제하다 보니 답답하다"며 "대입 수험생활 때 못 본 드라마를 보며 위안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학내 모임 금지·시설 폐쇄, 자치 활동도 위축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학내에 시설 폐쇄·모임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면서 동아리 등 학생 자치 활동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모 학술동아리 회장 이모(25)씨는 "그들 스터디를 할 만한 공간을 찾지 못해 동아리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정기적으로 빌리던 강의실은 폐쇄됐고, 학내에선 일정 수 이상 모임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전했다.

온라인을 활용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동아리도 고민이 많다.

마케팅 분야 학습 소모임 회장 서모(23·여)씨는 "모임 특성 상, 학우의 발표에 대해 표정·발화 태도 등도 꼼꼼하게 지켜봐야 한다. 온라인 방식의 모임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남대 학생처 측은 "감염 확산세가 가라앉을 때까지 동아리방 폐쇄 조

◇ 2학기도 비대면 강의...새내기 캠퍼스 낭만, 어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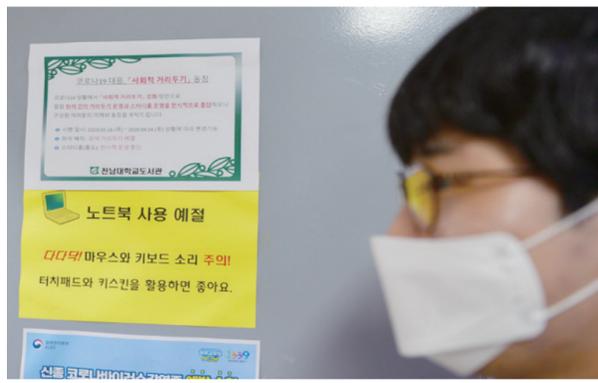
6일 광주·전남 소재 대학들에 따르면, 각 대학은 2학기도 비대면 강의로 진행한다. 대학 생활에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던 새내기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입생 조모(20·여)씨는 "신입생 환영회, MT 등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됐다. 같은 과 학우들과 아직 만나지도 못했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재수 끝에 20학번으로 입학한 김모(21)씨는 "기대했던 첫 캠퍼스 생활을 누리지 못했다"며 "동아리 활동 등 꿈꿔왔던 일들을 할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강의실 구경조차 못한 새내기들은 '집콕 생활'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박모(20·여)씨는 집에 머물며 넷플릭스(Netflix) 등 콘텐츠 스트리밍 플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일부 시설 사용이 제한된 지난 달 31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쓴 채 열람실에 들어가고 있다.

치를 유지한다. 다만 신규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 비 등을 지원해주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부할 공간도 없어' 난감한 대학생

도서관·스터디 카페 등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하면서 학업 불편도 크다.

조선대 재학생 김모(25)씨는 "주로 공부하던 학교 도서관이 폐쇄돼 스터디 카페를 다니고 있다. 학습 환경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 능률이 다소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남대도 방역 차원에서 중앙도서관의 폐관 시간이 2시간 앞당겨졌다.

조모(28)씨는 "학습 공간을 구하기 어려워 카페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학생 신분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스터디 그룹을 꾸려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체 학습공간을 구하지 못해 난감하다.

도서관이 폐쇄 또는 축소 운영되면서 스터디 카페로 학생들이 몰리는 데다가, 일부 공간 대여업체는 신규회원 가입도 받지 않고 있다.

한 고시 준비생은 "제대로 된 스터디 그룹 운영이 어렵다. 온라인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집중력이 떨어져 고민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스터디 카페·독서실 등 학습 공간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오전 0시까지 학습 시설 내 50인 이상 모임은 할 수 없다. 김민경기자

음주운전하다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20대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를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15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고창~담양고속도로를 역주행, B(32)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재판장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로 인한 B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열심히 합의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5)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1시45분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55%)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지인 B씨에게 전화,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했다. 벌금 나오면 내주겠다. 나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같은 해 11월과 12월 경찰서에 출석, "내가 음주운전했다"며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누비기간 중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했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 재판장은 "수사기관에서 자수해 수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케이블제조회사 물류창고 건물서 화재

5일 오전 11시 40분께 부산 남구 용당동의 한 케이블제조회사 물류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해 40대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대응1단계를 발령, 소방헬기 1대와 장비 60여 대, 소방대원 90여 명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화재현장 인근 신선로 왕복 7차로 800m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 차량을 돌아가게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 공장서 유압유 누출대 불...3명 화상

5일 오후 2시 58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서 기계 부품 교체작업 중 유압호스가 빠지면서 유압유가 누출돼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해 공장 작업자 3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불은 공장 천정 일부 등을 태우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남도교육청, 학생 선수 사망 교장 등에 구상권...일부 승소

교장·감독 상대로 손해배상액 구상권 행사

중학교 유도 선수 사망과 관련,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전남도교육청이 학교장과 감독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유현중·최항석·김승주 판사)는 전남도교육청이 교원인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변경, 'A씨와 B씨는 도교육청에 각각 202만여 원(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상대로 3억 원이 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익이 없는 승소 판결이다.

A씨는 2014년 전남 모 중학교 교장, B씨는 이 학교 교사이자 유도부 감독이었다.

이 학교 유도 선수 C양은 전국 하계 중·고 유도연맹전 출전을 1주일 앞둔 2014년 7월 52~54kg의 몸무게를 유지했다.

C양은 57kg 또는 52kg 이하 체급의 유도 선수로 각종 대회에 출전했

지만, 감독과 코치의 권유로 48kg 이하 체급으로 출전하게 됐다.

C양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패딩 점퍼와 пам복을 입고 달리고 운동 직후 수분 배출을 배가시키는 한편 수분 섭취는 최대한 자제하며 훈련했다. C양은 같은 달 31일 오전 5시50분께 약 1시간 정도 구보 등을 한 뒤 아침 식사를 거른 채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다 사망했다.

C양의 사망과 관련, 감독 B씨와 당시 코치 D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C양의 가족은 도교육청과 A·B·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책임기관인 도교육청은 교원과 코치를 대신해 C양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액 3억774만1840 원과 소송비용을 지급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C양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 약간의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C양의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교원인 A씨와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최이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